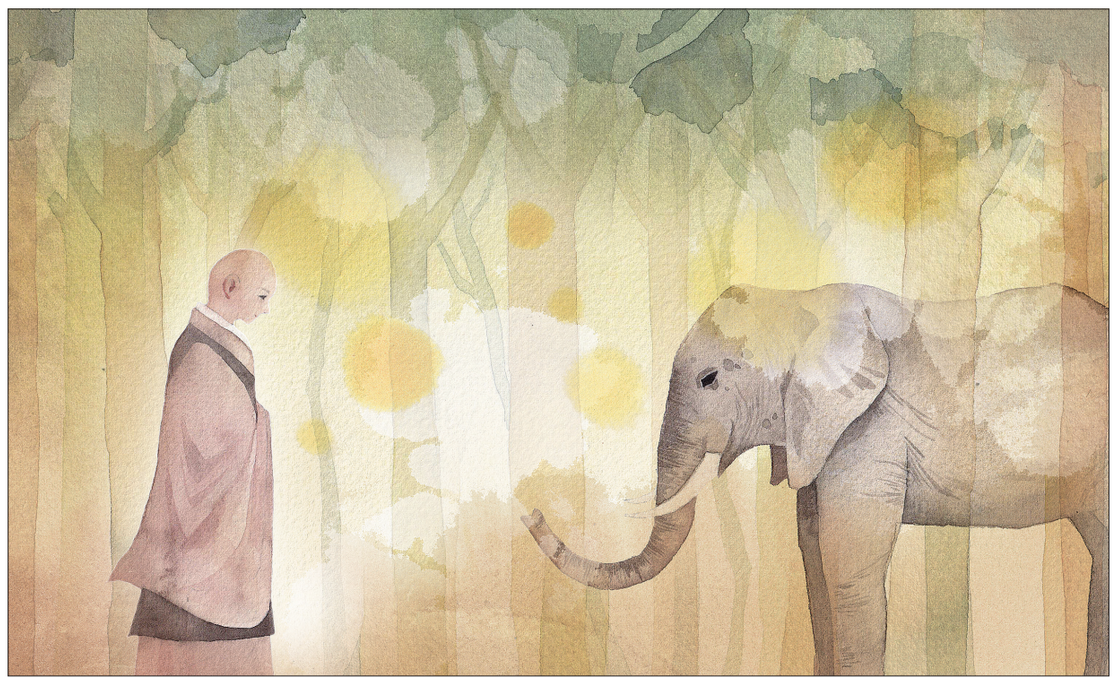
경전 속 동물들이 주는 교훈들



숲속성자들
이미령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이미령 경전이야기꾼 선별한
경전에 담긴 동물 이야기들
비유 따라가면 우리 본성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반도에는 원래 고양이가 없었다고 한다. 주로 삵과 같은 육식 들고양이가 주류였다. 그렇다면 요즘 '코리아숏헤어' 일명 '코숏'이라고 부르는 한국 고양이들은 언제 한반도로 유입됐을까. 한반도에 고양이들이 유입된 것은 불교의 전래와도 관련 있다. 귀중한 불교 경전을 육로나 해로를 통해 가져오는 과정에서 쥐들이 갉아먹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 고양이들은 경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5~6세기 가야 토기에는 고양이가 새겨있을 정도다.

불경을 지켰던 고양이는 불교 경전 〈맛지마 니까야〉에도 나온다. 붓다 제자들이 참선의 경지에 들어 이리저리 사색하는 것을 "마치 고양이가 문 기둥이나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서 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리저리 궁구하듯"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실제 불교 경전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특히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본생담)〉는 '이솝 우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흥미로운 동물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처럼 경전에는 숱한 동물이 나오지만, 불교는 동물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동물에 빗대어 '사람'을 말하는 종교다. 붓다의 가르침을 좀 더 친근하게 설명하기 위해 동물을 비유로 쓰고, 동물의 입을 빌려 사람의 어리석음을 꼬집기도 한다. '동물은 그저 거들 뿐' 본질은 그 속에 담긴 깨달음의 지혜인 셈이다.

본지 필진인 이미령 경전이야기꾼의 〈숲 속 성자들〉은 불교 경전에 담긴 동물들의 이야기를 동물별로 선별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일반적으로 우화(寓話)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라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내려놓으면 '전지적 동물 시점'으로 본 인간의 본성과 삶의 지혜, 붓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원숭이는 사람 흉내를 내는 간악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부처님께 꿀물을 공양한 인연으로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는 현자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의 제목이 '숲 속 성자들'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작고 여린, 그래서 아름다운'에는 새와 벌, 거북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너무 흔하고 약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치부되곤 하지만 경전 속 비둘기는 자신의 목숨 무게가 왕의 그것과 같음을 보여주고, 아난존자의 법문을 밤낮없이 외워 마침내 인간으로 태어난 앵무새는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일러준다. 또 꽃의 빛깔과 향기를 다치지 않고서 달콤한 꿀만 취하는 벌에게서는 탁발하는 자세를, 단단한 등딱지에 사지를 당겨 넣는 거북에게서는 생각을 거둬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2부 '지금 당신 옆의 따뜻한 생명들'에서는 고양이와 개, 토끼, 사슴 등 친숙하고 귀여운, 그래서 우리에게 조용한 위안을 주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열매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온 숲의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토끼는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 떠돌이 개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왕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데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한 우두머리 개가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이라는 일화도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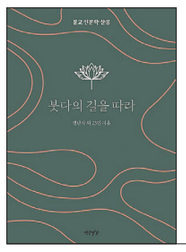
3부 '그렇게만 보지 말아요'는 원숭이, 여우, 곰, 뱀, 나귀 등 사람들의 편견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이야기다. 교태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다 여겨지는 여우는 경전에서 오히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 미련하다 오해를 받는 곰은 배신한 인간을 일깨우는 수행자이며, 악의 화신으로 상징되는 뱀은 석가모니 붓다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레 밤낮을 보호한 구도자임을 알 수 있다.

4부 '동물, 그 이상의 존재'는 말, 소, 사자, 호랑이, 코끼리와 같이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소개된다. 세속의 재물을 상징하는 소는 우리에게 "참다운 성품이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화두를 안겨 주고, 백수의 왕 사자가 벌레 한 마리에 잡아먹힐 수 있다는 사실은 "교만에 사로잡혀 마음공부에 게을러지면 끝내 무너지고 만다"는 경고를 전한다.

여린 사슴을 쫓더라도 커다란 코끼리를 쫓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자처럼 당신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사이 당신의 말씀은 사자후가 되고 당신의 자리를 사자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정진하고 성찰합시다. 사자처럼.

–'사자–근심도 집착도 않는 사자' 205쪽

불교와 인문학으로 빚어낸 '문자반야'들



붓다의 길을 따라 –불교 인문학 살롱
맹난자 외 지음/ 연암서가/ 1만8000원

'인문(人文)'을 한자로 풀이하면 '인간의 무늬'다. 인간은 유구한 역사 안에서 문학, 철학, 예술 등을 통해 스스로의 실존을 사유해왔다. 인간이 바로서는 데 기본이 되는 지침인 인문학이 불교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발간된 〈붓다의 길을 따라–불교 인문학 살롱〉은 지난해 본지에서 연재한 원고들을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불교 인문학 살롱'이라는 부제가 붙은 만큼 책은 불교와 문학, 철학 등의 통섭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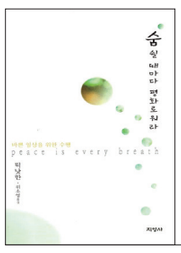
이 책의 1부에서는 백거이, 잭 케루악, 게리 스나이더,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오노레 드 발자크 등 '불교로 물질주의에 경종을 울린 작가들'이 소개되고, 2부 '붓다와 서양 철학자'에서는 데이비드 흄과 카를 마르크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질 들뢰즈,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경청한다.

3부 '지혜 반야의 길'에서는 역사적인 인물 스즈키 다이세츠, 향곡 선사, 경허 스님, 선각자 이탁오와 허균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4부 '마음에 녹아든 경전의 말씀'에서는 〈반야경〉 〈화엄경〉 〈유마경〉 〈승만경〉 〈숫타니파타〉의 말씀을 듣는다. 5부 '수필로 쓴 나의 구법기'에는 봉인사, 무량사, 부탄 등지에서 체험한 구법기(求法記)를 실었다.

총 24명의 전문가, 작가들이 빚어낸 '문자반야'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공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불교의 진리는 인문학의 뗏목을 타고 대중 속으로 스며든다"며 "세간의 지성이 출세간적 진리와 만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체험을 하고 값진 기록을 남겼다. 그 체험은 화려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 시대 지성인의 고뇌를 고백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숨에 집중하세요 평화로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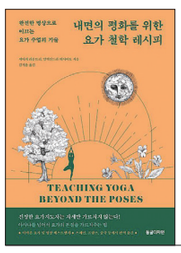


숨 쉴 때마다 평화로워라
틱낫한 지음
위소영 옮김
지영사
1만6000원

〈숨 쉴 때마다 평화로워라〉는 지난 2022년 원적에 든 틱낫한 스님이 쓴 짧은 법문을 모은 것이다. 스님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틱낫한 스님은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챙김 호흡이며, 이 수행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크다고 강조한다. 들이쉬는 숨에 집중하면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내 모든 계획들을 놓아버리면 호흡과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번의 들숨과 날숨이 나를 완전하게 살아있게 한다. 신중일 기자

내면의 평화 다다르는 요가 수업을 하는 법



내면의 평화를 위한 요가 철학 레시피
세이지 라운트리, 알렉산드라 데시아토 지음/ 김지윤 옮김/ 동글디자인/ 3만6000원

요가는 신체의 단련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 철학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운동이다. 요가와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이지 라운트이와 알렉산드라 데시아토가 저술한 〈내면의 평화를 위한 요가 철학 레시피〉는 방대한 요가 철학을 녹여낸 54가지의 다채로운 수업 주제와 함께 명상을 돕는 노래, 시, 인용구를 레시피처럼 제공한다. 처음에는 이 가이드를 그대로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목적에 맞는 수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느새 진솔한 자신만의 목소리로 요가 수업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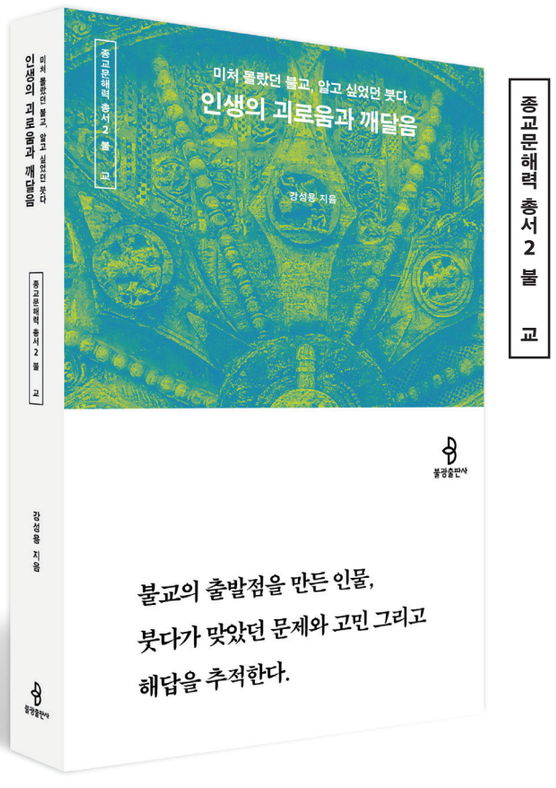
종교문해력 총서

"고생해서 고생이 사라지면 고생이 없겠네!"

까르마·사성제·팔정도·12연기·윤회의 색다른 해석
당신이 이제껏 믿어온 '불교'를 신박하게 뒤집다!

'고생뿐인 인생에서 어떻게 고생을 없앨까?'라는 붓다의 2,500여 년 전 고민은 지금 우리의 고민과 같다. '인생은 고생'이라는 단순한 명제를 풀고 싶다면 이 책은 해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02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 싶었던 붓다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강성용 지음 | 344쪽 | 20,000원



종교가 어려운 현대인을 위한
종교 감수성 입문서
'다름과 공감하는 시선'
종교문해력 총서

01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성해영 지음 | 272쪽 | 18,000원
03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정경일 지음 | 272쪽 | 18,000원
04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박현도 지음 | 392쪽 | 22,000원
05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
장진영 지음 | 336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